



'8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액이 총 7억 2천 5백54만원으로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지급액 7억 9백60만 4천원과 비교해 2학기 장학금 지급액 6억 9천 9백76만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가된 장학금 액수도 얼마되지 않은 편이며, 이것마저도 성적우수학생과 자치기구학생들에게 치중되고 있어 장학금 수혜율이 33%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그림의 떡)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장학제도의 제 문제점을 지적해, 장학제도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며 장학수혜인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장학제도의 원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따라서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이 막힐 우려가 큰 자본주의체제에서 빈곤층의 자제에게 교육기회의 균등을 뒷받침해 주려는 데 있다.

본교에서도 이런 취지에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땅히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단지 성적이 약간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되고, 학생자치기구 집행부나 경제적이건이 부유한 학생, 체육특기자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는 장학금 지급규정이 불명확함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본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은 가점평균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양호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여 경제사정과 성적을 동시에 고려, 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조항의 지급규정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경제사정을 거의 무시하고 전적으로 성적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선정, 지급되고 있다.

물론 혹자는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교 장학담당관실에서도 객관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각 대학에 일임하고 학과나 학과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얼마만큼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선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대부분 단순히 성적순으로 수혜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을 뿐이다. 객관과 편의에 앞서 얼마만큼 장학제도의 취지를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생자치기구(학생회 간부,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 등) 장학금 배정인원이 타국립대학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다. (표 참조)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학생자치기구에 배정된 장학금(이하 지급이유에 따라 봉사장학금) 수혜인원을 보면 A급(전액면제)이 60명, B급(수업면제)이 73명, C급(기성회비면제)이 18명 합하여 총 1백51명으로 교외장학금 수혜자 1천 9백43명의 8%에 이르고 있다. 이것으로도 자치기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 함께 생각해 봅시다 <4>

# 장학제도 대폭 개선 절실

셋째로, 장학재원을 등록금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 현재 본교에서 지급되고 있는 교외장학금은 총 33종류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해 1학기 지급액 6천 5백여만원, 지난해 2학기 지급액 6천 8백여만원, 그리고 올해 1학기 지급액 7천 9백여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본교가 지방대학이라는 데에 기반하고도 하겠지만 학교측이 장학재원확보를 위해

액, 지급사유 그리고 선정이유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 한 예로 근로장학생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근로장학생의 대상은 진정으로 가정이 곤란해 근로장학생을 학비에 보태려는 학생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비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근로장학생의 목적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한편, 본교의 경우 재학생수는 타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봉사장학금 수혜인원은 타대학보다 많거나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봉사장학금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장학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할 등록금 재원에만 의존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장학금수혜율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총내 대학의 경우 「총내대학교 장학

요하다.

봉사장학금을 협편상 등록금 재원에만 의존한다 하더라도, 본교에서 등록금재원에 의존·지급하고 있는 면제·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약 3%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봉사도를 따져 배분함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학생자치기구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3% 정도인데 수혜율은 전체수혜자의 8%를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학생과 자치기구학생들간에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학생 장학금 수혜자의 3% 범위정도로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수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장학재원을 등록금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외부 장학금 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금의 참여를 유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측도 각 기업에 대한 홍보, 협회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소비촉진운전에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번째, 동문회장학재단확충은 장기적 사업이지만, 모든 장학문제의 근원이 장학재단 부족에서 오는 것이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재원마련과 지역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대폭적인 기부금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교 장학담당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앞서 제기했던 제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측에 재정지원확대를 촉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학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다. 앞서 제시했던 몇 가지 대안에도 장학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장학담당기구로서 장학담당관실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이고 현재의 장학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김병성 記者】

## 어두운 대학문화를 청산하자

### 社說

대학의 축제·체제행사를 보며

어느 사회든지 삶의 축제는 있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축제란 그 사회의 집단성원의 에너지를 즐겁게 승화시켜 준다. 그런데 대학가에서도 축제가 각양각색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왔다. 우리 대학은 5월의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축제가 마련되어 왔었으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5월의 축제에 이어 10월의 가을 축제까지 치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축제는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대학성원의 에너지를 즐겁게 승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다만 그 행사가 대학전체의 행사로 치루어지고 또 단과대학자체 행사로 치루어지는가 하면 또 각학과 자체로 행사가 치루어져 거들떠 행사 때문에 마치 대학생활의 체제처럼 되어지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만해도 연휴가 많아 수업결손이 있었지만 그런 연휴에 이어 또 각양으로 가을축제까지 치루어 보니 상식으로 생각해도 수업결손은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대학의 순수 수업일수를 측정해보면, 토요일과 공휴일 등의 71일과 등·하계방학기간 1백49일을 제외하면 순수 수업일수는 1백45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축제, 체육대회, M.T 등의 행사가 휴업을 고려하면 과연 법정 수업일수인 32주에 우리가 얼마나 내실있게 접근하고 있는지 각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의 대학 속에서 노골적으로 대학은 놀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가 공문처럼 되었다면 대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일이다. 체질화된 생활습관을 하루 아침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학기마다 계속되는 시위, 휴강 수업 및 등록금 인상거부 마친다는 총학생회 집거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년도의 연속」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수업결손이 있다 해도 대학내 소요만 없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내려는 我田引水 논리에 그칠 뿐이다.

각급에 치루어지고 있는 우리 대학의 행사에 대한 학생의 열마디 많이 참여하여 왔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5월의 축제와 10월의 축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할 것인지, 축제를 위해 축제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대학성원의 에너지

를 즐겁게 승화하기 위해 축제가 치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선할 일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어떤 이유든지 대학은 수업결손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치달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보다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학인들의 충지를 모을 양심을 되찾는 일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나고 멋지게 대학인 저마다 대학시절에 불꽃같은 대학축제도 있었지만 기념비적인 낭만도 구가하고, 한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학시절에 학문연구에 전진했다는 긍지를 갖는 대학으로 수업결손을 줄이면서 정상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니, 대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대학으로서 본래의 제기능을 다하고 바르게 위상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날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닐 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상식적인 일부터 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고 싶다.

우리는 대학의 역사가 결코 일반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인위적이고 기득권적인 맥락에서 수정되고 거스르는 작업은 더욱더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바로 오늘을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대학의 의지, 실천양식의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동의 실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체에 본래 3대 총장취임후 그 어느 때보다 다져지고 있는 학원의 민주화가 되고 우회되는 일이 없이 비합리적인 것에 당당히 면학분위기와 맞서는 정직성과 용기를 발휘하면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대학의 양심과 자유와 지성을 탐구하는 개척자적 정신을 일구어가도록 진심으로 바래본다.

대학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았을 때 대학인 전체의 공동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대학의 학사운영면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가꾸어지고 수업결손과 학원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각종 축제행사도 모든 대학인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합리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금 대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것인가를 낚아 채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 성원 모두의 일임을 자각하길 당부해 마지 않는다.

【지미나 記者】

## □ 총대의원회 활성화 방안

# 총대기능에 대한 인식 재고 代議·牽制기능 회복 해야

얼마나 노력하고, 홍보활동을 벌였는가 하는 점도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관한 문제다. 37년이라는 짧은 짧은 역사를 가진 본교의 동문회 이례적 1억여원의 기금조성을 겨우 마치고 결실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리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교수·학생과 더불어 동문 모두의 각성이 요구되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면 동문들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후배들의 장래보급문제에 비추어 장학기금조성과 운용에 있어 돋보일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위에서 장학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다음 몇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학금은 성적보다 학생의 빈곤여부를 우선으로 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에대해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또는 공부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면학이란 학생 개인의 주체적 의지이며, 빈곤한 학생에게 있어서는 공부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빈곤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의 취지를 일일이 알아볼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고 정보수집 역시 어렵다고 하겠지만 타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지급신청서」 제도를 도입, 학생들과의 빈번한 대화와 함께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장학생의 명단과 금

이는 근로장학생을 선발,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제히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저 낯한 대로 신청순서 등에만 의존,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근로대상자의 일의선정 등 제반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학생의 명단과 금액, 지급사유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세번째, 자치기구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봉사장학금은 본교와 타대학의 현 실정을 비교해보면서 새로이 배정해야

재단」을 설치,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자치기구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에는 충분히 고려해볼지도 하겠다. 봉사장학금은 명목상으로는 자치기구 학생들이 학교에 봉사하고 명예를 드높임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과거 학생운동의 유훈과 한 방편으로 증대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수혜확대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의 형평성 재고라는 면에서 이에 대한 조정작업이 시급하며 아울러 자치기구간에 전면적인 배분원칙 조정이 필

것은 무엇보다도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이라 하겠다. 이에 총대에서는 합시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축제기간동안 설치·운영했던 「총대자문회」를 제외하면 대의역할을 담당할 공식장구나 이렇다할 별다른 활동을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대의기구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이다.

총대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볼 때 감사가 그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는데, 감사는 자치기구의 재무와 사업운영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포시로서 자치단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능동적 참여행위라고 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경우 정기감사와 임시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매학기말에 실시하고 임시감사는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시 행해져 되어 있으며, 5월 축제기간과 회계연도 규정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공개발표가 없었으며 더구나 금년 산하기 회계감사결과 또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치기구에 총대가 갖는 위상은 총학생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입주를 수행하는 것이나, 역할수행의 부진으로 인해 그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에 따라 일반학생들에게는 총학생회 하부구조처럼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총대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

래 있지만)을 이해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감사에서 시정요구조치가 거의 없었으며 형식적인 감사에서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조직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대학의 대의원회는 학과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학과 학생회장들은 바로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두 기구를 동시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쓴 돈과 행한 일을 자신들이 직접 감사하는 격이 되어 실질적인 감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 지적돼 온 총대의원들의 무관심도 이 잘못된 조직체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 학과의 학생회장직을 맡아 학과일에 전념하다보면 대의원회에는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조직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대학의 대의원회는 학과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학과 학생회장들은 바로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두 기구를 동시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쓴 돈과 행한 일을 자신들이 직접 감사하는 격이 되어 실질적인 감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 지적돼 온 총대의원들의 무관심도 이 잘못된 조직체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 학과의 학생회장직을 맡아 학과일에 전념하다보면 대의원회에는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회로 묶여지는 방안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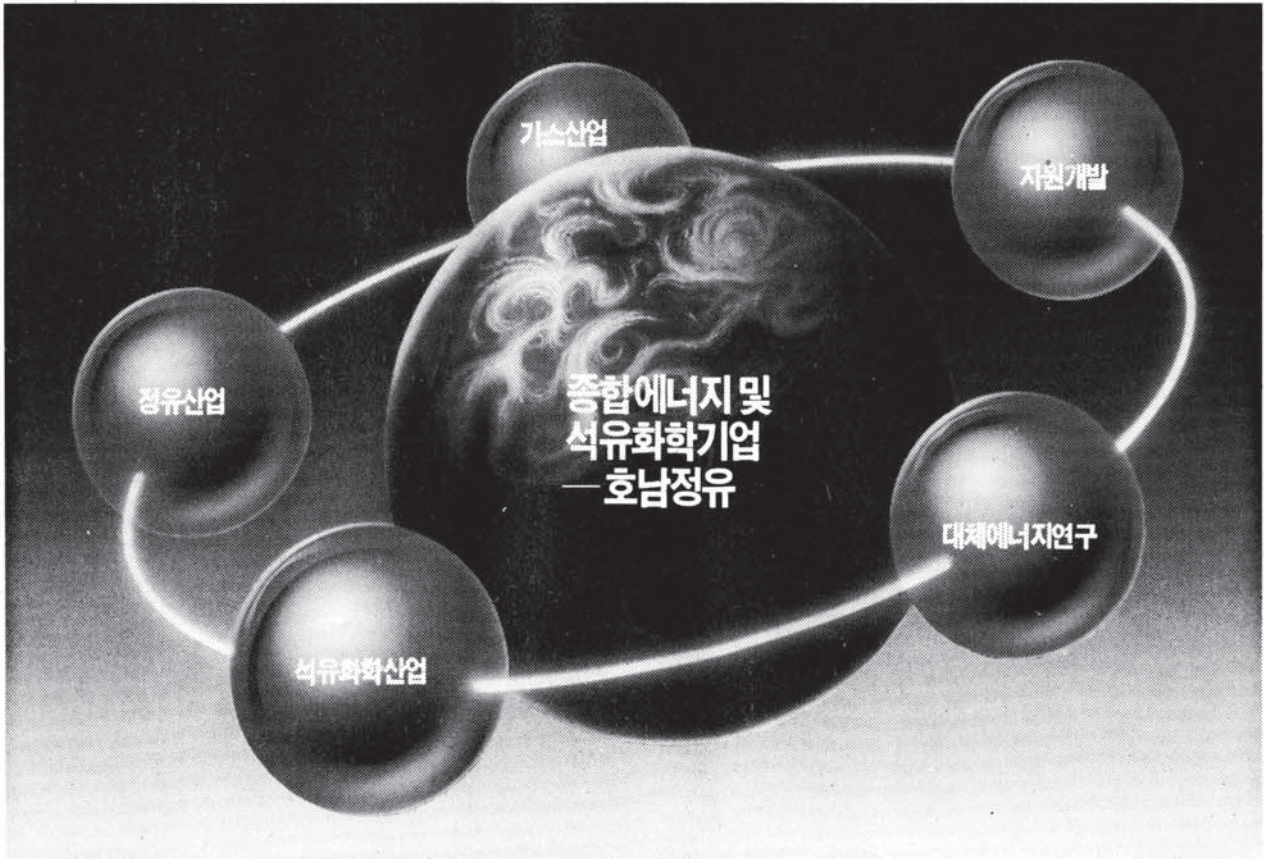
잘못된 조직체제를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이 총대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사실상 인식의 결여로 파생, 간과되는 문제점들이 총대가 제기하는 발취지 못하도록 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런 모습은 총대활동을 수행해나가기에도 힘든 총대의장이 평소준비위원장을 맡은 데서도 엿볼 수가 있다. 타자치기구와 연계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나 총대의 기본 기능과 역할은 충실히 하는 바탕위에서 그러한 활동도 모색해야 한다.

총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 그동안 산적된 문제를 극복해내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차와 학생자치기구에 속해 있는 집행위원과 대의원들은 우리대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그 직책을 맡은 만큼, 자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감칠맛을 의지와 주체적인 행동이 가미될 때 비로소 학생들이 신임하는 총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2천년내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판매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의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힘찬 향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의지로써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하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부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공급을 위해 19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영리기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이미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BTX 공장을 비롯한 최신의 각종 석유화학공정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